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7년 3월 16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1장

담당: 홍보실

전화: 02-3703-7431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망 보고서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16일(목), 고명현 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두 외교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와 국방력 강화로서, 이 틀 안에서 대북정책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행정부에 비해 더 공격적이나, 미사일 방어체제와 경제제재를 강조하는 기본적 골격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을 압박하는 부분을 포함시켜 대북압박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미국이 대중 압박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핵전력 증강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대대적인 핵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은 중국의 핵 억지력을 붕괴시킬 수 있어 중국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수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 또한 계속된 북한의 대미도발로 인한 중국의 핵억지력 상실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고 연구위원은 트럼프 외교안보라인의 인재난으로 인해 "당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가 주도하게 되어 외교적 수단보다는 군사적 압박과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대비해 "한국은 견고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가져올 손익에 대해서도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자 약력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명현 박사 <http://asaninst.org/experts/bio/?u=12>

* [별도 첨부자료] 이슈브리프 '트럼프의 외교기조와 대북정책' 전문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91위) 선정되었습니다.